

The LEET BIBLE

변호사 사례형문제 집필

오르지 않는 LEET 점수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교과서, 리트바이블



FINAL ROUND 2026

2026학년도 기출문제 철저분석

언어이해



FINAL ROUND

제목	The LEET BIBLE Final Round 2026 언어이해
발행일	2025년 9월 18일 초판 1쇄
Version	v2027-1.00
지은이	사례형문제
편집인	정태환, 정찬빈
펴낸이	정태환
펴낸곳	어반컬처랩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9 대우도씨에빛2 1동 1514호 (서초동)
홈페이지	https://leetbible.com
전화	070-4138-2100
정가	39,800원
ISBN	979-11-994933-8-4(15360)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 복제/배포/수정은 엄금하며, 본 교재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들어가며

The LEET BIBLE의 집필 방향

The LEET BIBLE 초판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귀중한 의견과 제안들은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 덕분에 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설명 방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The LEET BIBLE이 LEET를 바라보는 방향성

출제자의 인적 자원 POOL이 비슷하고 평가하려는 능력과 방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The LEET BIBLE은 **법학적성시험(LEET)이 수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합니다. 이는 두 시험이 실전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학습 전략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LEET에서는 난항을 겪습니다. 만약 두 시험의 고득점 전략이 동일했다면, LEET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LEET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수능이 정해진 학습 범위 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성 중심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LEET가 요구하는 사고 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다수의 시험과 준비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LEET를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간주하고 과거 성공했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 즉 휴리스틱(Heuristic)에 빠집니다. LEET라는 시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LEET가 요구하는 사고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왜 적용이 어려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입니다.

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LEET 학습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LEET 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명확한 훈련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LEET BIBLE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나 문제 풀이 요령을 넘어서, “어떻게 사고 과정을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된 사고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가?”와 같은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The LEET BIBLE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 전략을 넘어, 수험생이 실제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Final Round 교재는 어떤 교재인가

이제 Final Round를 학습하시는 여러분들은 LEET 준비의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LEET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이 본 교재를 보신다면, 최신 기출문제를 바로 다루어보시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같은 것은 잘 이해하지만, Principle 등 더 앞단으로 돌아가서 LEET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향을 학습하신 뒤 본 교재를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혼자 공부할 때와는 다른 변수들이 추가됩니다. 실제 시험 시간의 제한이라는 변수, 낯선 환경에서 높은 긴장감과 제약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변수,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변수 등이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변수 하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게끔 **각 문제를 푸는 우선순위, 접근방법 등 전체적인 시험운영 전략에 대한 부분 또한 제대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단순히 문제의 해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LEET문제를 접했을 때 과연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총체적으로** 다룹니다. 즉, 실전 연습으로 Full Set로 문제를 풀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배우면서 “시험장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실행하는 것” 단계를 연습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문제 풀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 구성만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부터 각 문제를 학습 이후 혼자 정리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는지 등까지 폭넓게 커버합니다.

마치 LEET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마음으로 본 교재를 학습하시어, 앞선 과거의 기출문제를 통해 훈련했던 LEET의 기초를 마음껏 발휘해 보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해, 여러분만의 LEET 접근법을 다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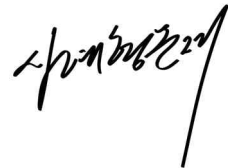
맺음말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LEET 신수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EET 성 적은 신이 내린다는 자조적인 표현이지만, 이는 수험생의 도전 의지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통념입니 다. The LEET BIBLE은 이러한 막연한 속설을 넘어, 수험생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확실한 이 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The LEET BIBLE에서 제시해 드렸던 방법론을 본 교재에서 다루는 최신 기출문제에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원하는 LEET 점수에 다다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다 른 교재에서도 강조드렸듯 LEET는 지식형 시험이 아닌 적성형 시험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만약 본 교재로 최신 기출문제 풀 세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특정 유형, 특정 제시문에서 즉각적 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지점을 앞선 교재로 돌아가 보충하시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값진 도전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법조인으로 서의 꿈을 향한 여정에 본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



The LEET BIBLE Final Round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The LEET BIBLE Final Round 교재는 커리큘럼의 가장 마지막 교재로, 한 해의 전체 기출문제를 리트바이블 방식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훈련해 왔던 방법들을 토대로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단순히 원리나 접근방식을 넘어서 시험장에서 행해야 하는 실전적 대응 방법도 같이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야 하는 점은, 기출문제를 완전히 학습하고 제시문과 문제풀이를 다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가 아닌, 극도의 긴장감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실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훈련을 하는데 모든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Final Round 교재에서는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Tip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1 FINAL 행동강령

FINAL 행동강령

앞서 The LEET BIBLE의 LEET Tips와 유사한 형태이나, Final Round에서 드리는 팁은 “행동강령”, 즉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확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앞선 리트바이블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계속해서 훈련해 오셨다면, FINAL 행동강령에서 의미하는 바가 더 확실히 와닿을 것입니다.

2 LEET 실전전략 / 사전적, 사후적 분석

LEET 실전 전략 / 사전적 분석

첫 번째 제시문을 읽을 때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오히려 이를 대비하여 연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파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험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사실일지 문제의 선지를 최대한 읽어...

LEET 실전 전략 / 사후적 분석

1번 문제는 전형적인 대응형 문제로서 남들보다는 시간을 줄이면서 풀며 동시에 맞혔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제를 2분 30초 내지 2분에서 풀어 시간을 1분 정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험 운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5~6분 걸리신 분이 많았습니다.

Final Round에서만 보실 수 있는 LEET 실전 전략 코너로,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분석 두 파트로 나뉩니다. 사전적 분석은 해당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사고방식이나 전략에 대해 논하고, 사후적 분석은 해당 문제를 다 마친 다음에서의 총론 및 추가적인 코멘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접근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과목이나 문제에 따라 없을 수 있습니다

3 시험장 실전 운영 전략



시험장 실전 운영 전략

Test-taking Strategy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시험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특히 시간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제안해 드립니다. 각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전략이 아닌 더 큰 차원에서 LEET 시험 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크로 솔루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CHAPTER

01

Final Round 사용설명서 9

1. Final Round 집필 의도 11
2. 시험장에서의 실전 행동방식 13

CHAPTER

02

2026 언어이해 총평 17

CHAPTER

03

2026 언어이해 문제풀이 (상) 33

1. 1~3번 제시문: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35
2. 4~6번 제시문: BPMN과 DMN 모델링 표준 55
3. 7~9번 제시문: 민주주의 퇴행 모델 80
4. 1~9번 시험장 실전 운영 전략 99
5. 10~12번 제시문: 조선 과거제도와 현량과(천거제) 103
6. 13~15번 제시문: 인식적 수의주의와 불수의주의 123
7. 16~18번 제시문: 도구 변수를 활용한 제도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143
8. 10~18번 시험장 실전 운영 전략 166

CHAPTER

04

2026 언어이해 문제풀이 (하) 168

1. 19~21번 제시문: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IV』 170
2. 22~24번 제시문: 행위와 무위의 비대칭성 논제 190
3. 28~30번 제시문: 대한민국 공화제의 형성 과정 210
4. 19~30번 시험장 실전 운영 전략 (25~27번 제외) 230
5. 25~27번 제시문: 깃스 에너지와 분몰 부피 232

정답지 257

CHAPTER

01

Final Round 사용설명서



The
**LEET
BIBLE™**

“

드디어 Final Round.
여러분이 지금까지
갈고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실 차례입니다.

제 1 장

Final Round 사용설명서

The LEET BIBLE

1 Final Round의 집필 의도

그동안 The LEET BIBLE 시리즈를 통해 쌓아온 LEET 학습의 노하우와 전략을 집대성하여, 수험생 여러분께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이드로서의 새로운 해설서를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The LEET BIBLE 시리즈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는 Final Round는 사실상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LEET 학습에 필요한 모든 사고과정을 담고자 하려는 시도입니다.

The LEET BIBLE Final Round 2026에는 2026학년도 최신 기출문제 중 언어이해 30문제와 추리논증 40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및 접근법을 담았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설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어떻게 실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수험생 입장에서의 접근입니다. 기존의 The LEET BIBLE의 모든 시리즈도 그러하였으나, 더욱이 이 책은 실전적 접근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정답이 왜 도출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의 흐름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흔히 빠지게 되는 함정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핵심 원리와 기술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최근 LEET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보다, 지금의 로스쿨 입시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높아진 난이도를 바탕으로 한 경향을 짚어보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제시문을 완벽하게 독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독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넘어가되, 전체적인 흐름은 놓치지 않도록 독해 과정을 조절할 것을 Principle(상), (하)를 통하여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제시문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문제 풀이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시험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저는 제시문 독해 과정에서는 목차 설정과 중요 문장 표시에 주력할 것을 권했습니다. 수년간의 기출 분석을 통해 빈출 선지로 등장하는 유형의 문장이나 핵심 개념을 담고 있는 문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이를 토대로 독해에 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제 풀이 시에는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해둔 행동 강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LEET 시험을 준비했고, 특히 언어이해 영역에서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기출 분석과 모의고사를 통해 출제 경향을 꿰뚫어 보는 한편, 본 시험에서는 평소 세워 두었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침착하게 문제에 접근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저의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The LEET BIBLE Final Round는 여러분이 막연한 두려움 없이 LEET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한편,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한 학습 전략을 통해 실전에서의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소 험난해 보이는 LEET 정복의 여정에 이 책이 좋은 동반자가 되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책과 함께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실력이 눈부시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

02

2026 언어이해 총평



The
**LEET
BIBLE™**

“

2026학년도 언어이해는,
최근 3년간 누적된 출제 방식이 하나의
고유한 틀로 굳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지문의 난해함 자체보다
논의의 층위를 구분하고 핵심 판단 기준을
끝까지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해졌고,
그에 따라 독해의 정확도와
사고의 일관성을 함께 요구하는
고난도 시험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2 장

2026 언어이해 총평

The LEET BIBLE

1. 전체 난이도 및 경향 분석

2026학년도 LEET 언어이해 영역은 전반적으로 중상 정도의 체감 난이도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의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특정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유형은 아니었으나, 제시문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선지 판단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구성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제시문의 논의 구조를 형식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 언어이해 문제에서는 최근 LEET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논의 구조 기반 독해”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제시문들은 특정 개념이나 이론을 단순히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이나 설명 방식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인과 구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개별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보다 논의의 중심 구조와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이번 시험에서는 선지의 표현 자체가 복잡하기보다는, **제시문에서 제시된 핵심 관계를 미묘하게 변형하여 제시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LEET 언어이해에서 매우 전형적인 출제 방식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단순히 기억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차원을 정확히 구획한 상태에서 선지를 비교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CHAPTER

03

2026 언어이해 문제풀이 (상)



The
LEET
BIBLE™

“

2026학년도 언어이해는
최근 어려워진 시험의 최종판이라
할 만큼 정형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결국
변하지 않았습니다.**

리트바이블의 핵심 원리인
차원의 구획과 전략적 선택이
실제 풀이 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작동하였습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학 전통에서 대체로 자연은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의 총체이자 집단 혹은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소유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그것을 둘러싼 인간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위해 존재한다. 생태사상가 베리는 인간이 세계 전체 혹은 타자와 맺는 관계 양식이 인간중심의 법규범에 반영되어온 동시에 그러한 법규범에 의해 강화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법적 인격만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고 인격 아닌 모든 존재자는 행위의 객체인 물건으로 보는 법은 자연의 가치를 인간의 손익과 관련지어 평가할 뿐 존중하진 않았다. 최장 시간에 걸쳐 최대 다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자연자원을 향유하기 위해 보호해야 한다는 보전주의적 관점 역시 근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에 둔다. 베리가 주창한 지구법학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의 권리를 지구권으로 정립하려 한 급진적인 법사상이다.

비인간 존재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그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가령 레건은 살아있음을 넘어 스스로가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는 상대적으로 더 월등한 존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거로써 동물의 권리를 옹호한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선을 가지며 그 고유한 가치의 잠재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테일러는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까지를 권리의 주체로 이해한다. 더 나아가 지구법학은 우주의 질서 안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그것이 권리를 가진다는 규범적 결론을 끌어낸다. 이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실체를 갖거나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점하는 존재자인 무생물의 권리도 인정된다. 지구법학의 지향을 ‘야생의 법’이라 표현한 켈리넨은 다양한 창조물들의 생존과 안녕은 인간이 아니라 지구 행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며 권리 주체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인류는 그간 법에서 억눌려 왔던 감성과 감각을 되살려 지구공동체의 춤에 참여하고, 그 박자에 스스로 몸짓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권은 존재할 권리, 서식지에 관한 권리, 지구공동체가 부단히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권리 등으로 구체화된다. 강은 강의 권리를, 새는 새의 권리를,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가지며, 각 권리의 존재 양태는 저마다 다르다.

이러한 권리 개념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법의 근거로 채택한 ㉠사례도 없진 않다. 전문에서부터 ‘우리가 그 일부이자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어머니 지구’와의 조화를 언급한 에콰도르 헌법이 그 예이다. 헌법에 환경권을 명시한 국가들 대부분이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인류의 지속가능성만 환경을 보전·관리할 목적이라 본 데 반해, 에콰도르는 ‘생명의 순환과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권리’와 ‘자연이 스스로를 원상회복할 권리’를 헌법에 규정한다. 또한, 누구든 청원권을 행사하여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볼리비아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에서 자연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생태계가

본성 그대로 유지·회복하는 과정을 도울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전체로서의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 대신 특정 생태계나 종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을 택한다. ‘내가 강이고 강이 나다.’라는 마오리족의 믿음을 존중하여 황거누이강을 법적 인격체로 규정하고, 그 권리는 법이 정한 후견인이 강의 이름으로 강을 대리하여 집행할 것을 명시한 <테 아와 투푸아법>이 그 예이다. 흐르던 물길이 가로막힌 강이나 서식지를 침범당한 새의 권리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려는 환경운동의 기획을 넘어 구체적인 법리 구성 단계에서도 다루어지게 되었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인간중심적 법규범은 자연의 권리 근거를 ‘존재함’ 자체에서 구한다.
- ② 지구법학은 모든 개체의 권리가 동일한 존재 양태를 가진다고 이해한다.
- ③ 보전주의적 관점에는 법적 권리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 있다.
- ④ 지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지리적 영역을 점한다는 사실에서 권리 주체성을 도출한다.
- ⑤ 켈리넨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감응 능력을 중시하는 기존 법학을 지구법학과 조율하려고 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콰도르는 자연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데 비해 뉴질랜드는 사안별로 규정한다.
- ②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과 달리, <테 아와 투푸아법>은 자연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한다.
- ③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모두 지구공동체의 유지 및 재생을 도울 인간의 역할에 관해 법에 명시한다.
- ④ 에콰도르 헌법에서는 누구나 자연을 법적으로 대변할 수 있지만, <테 아와 투푸아법>에서는 특정인만이 특정 생태계를 법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
- ⑤ 에콰도르 헌법과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은 모두 침해된 자연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권리와 별도로 자연도 회복할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판결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A] 도로 확장공사 중 다량의 흙과 돌이 강에 매립되어 강폭이 좁아지고 강물이 범람하자, 마을 주민은 훼손된 강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강의 권리주체성을 부정하여 청구를 각하했다.
- [B] 수로 공사 중 지역 원주민들에게 문화적으로 특별한 상징성을 지닌 야생 벼 서식지가 수몰되자, 원주민 대표는 벼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공사의 중단을 명령했다.
- [C] 동물권리보호협회는 동물원 실태 조사 후, 오랑우탄이 자기 본성에 맞는 장소에서 살 권리를 가짐을 주장하며 간힌 오랑우탄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적절한 거주 조건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 ① [A]에 대해 레건은 동의하고 켈리넨은 동의하지 않겠군.
- ② [B]에 대해 베리는 동의하고 레건은 동의하지 않겠군.
- ③ [C]에 대해 베리는 동의하고 테일러는 동의하지 않겠군.
- ④ [A]와 [B] 모두에 대해 테일러는 동의하겠군.
- ⑤ [B]와 [C] 모두에 대해 켈리넨은 동의하겠군.

LEET 실전 전략 / 사전적 분석

해당 문제의 제시문은 언어이해 제시문임에도 불구하고 문단 수가 세 개에 불과하였고, 대신 각 문단의 분량이 비교적 길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제시문은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독해를 전제로 한 독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의 제시문이 매년 최소 한 세트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제시문 유형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반복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제시문에서는 추리논증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셔야 합니다.

해당 제시문이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이유는 문단 간 관계가 명시적으로 친절하게 제시되기 보다는, 수험생이 이를 능동적으로 구성해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시문을 읽을 때에는 각 문단의 내용을 단순히 순서대로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 각 문단이 전체 논의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앞 문단에서 제시된 정보가 뒤 문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거나 활용되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읽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런 유형의 제시문은 정보량 자체보다도, 흩어져 있는 정보를 재구성하여 문단 간 관계를 스스로 세워 내는 능력이 핵심이 되는 제시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새로운 유형으로 별개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문단]

법학 전통에서 대체로 자연은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의 총체이자 집단 혹은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소유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그것을 둘러싼 인간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위해 존재한다. 생태사상가 베리는 인간이 세계 전체 혹은 타자와 맺는 관계 양식이 인간중심의 법규범에 반영되어온 동시에 그러한 법규범에 의해 강화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법적 인격만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고 인격 아닌 모든 존재자는 행위의 객체인 물건으로 보는 법은 자연의 가치를 인간의 손익과 관련지어 평가할 뿐 존중하진 않았다. 최장 시간에 걸쳐 최대 다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자연자원을 향유하기 위해 보호해야 한다는 보전주의적 관점 역시 근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둔다. 베리가 주창한 지구법학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의 권리를 지구권으로 정립하려 한 급진적인 법사상이다.

첫 문단은 법학 전통에서 자연을 인간의 소유 대상으로 간주하는 차원과, 이를 비판하며 모든 존재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베리의 지구법학을 대비적으로 소개하며 이항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법학 전통	베리의 지구법학
자연 : 인간의 소유 대상 법적 인격만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의 권리 인정
보전주의적 관점	지구권

전통법학에서는 자연이 인간 간 권리·의무 관계를 위해 존재하며, 법적 인격이 아닌 존재는 단지 물건으로 여겨졌다는 점이 강조되는 차원입니다. 보전주의적 관점 역시 이와 같은 차원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생태 사상가 베리의 비판 차원이 더 세부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법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방식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더욱 강화해 왔다고 지적하며, 기존 보전주의 관점조차 인간 이익 중심이라는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확한 정보는 추후 재독해를 하더라도, 우리는 위 이항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들 간 관계를 연결해 나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리는 '지구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외의 존재들 역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항관계 구조의 제시문이 갖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문단]

[차원의 구획] 비인간 존재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그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가령 레건은 살아있음을 넘어 스스로가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는 상대적으로 더 월등한 존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거로써 동물의 권리를 옹호한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선을 가지며 그 고유한 가치의 잠재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테일러는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까지를 권리의 주체로 이해한다. 더 나아가 지구법학은 우주의 질서 안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그것이 권리를 가진다는 규범적 결론을 끌어낸다. 이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실체를 갖거나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점하는 존재자인 무생물의 권리도 인정된다. 지구법학의 지향을 '야생의 법'이라 표현한 켈리넨은 다양한 창조물들의 생존과 안녕은 인간이 아니라(not A) 지구 행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며(but B) 권리 주체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인류는 그간 법에서 억눌려 왔던 감정과 감각을 되살려 지구공동체의 춤에 참여하고, 그 박자에 스스로 몸짓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권은 ① 존재할 권리, / ② 서식지에 관한 권리, / ③ 지구공동체가 부단히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권리 등으로 / 구체화된다. 강은 강의 권리를, 새는 새의 권리를,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가지며, 각 권리의 존재 양태는 적마다 다르다.

두 번째 문단으로 접어들면서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되었던 쟁점과 연결된 관계의 세부적 연결이 계속됩니다. 우선, 논의의 초점은 “비인간 존재자에게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재편되며, 이는 첫 번째 문장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첫독해 과정에서 우리는 각 학자들의 입장을 1문단과 연결지어 어느 차원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세부 정보는 재독해의 대상이지만, 첫독해에서는 현실적으로 차원의 구획이 수행 가능한 과제이며,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레건	테일러	지구법학
경험하는 삶의 주체	고유한 선	존재한다는 사실
동물	동물 + 식물	동물 + 식물+무생물

레건은 '경험하는 삶의 주체'라는 심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한 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명 중심적 입장에서 식물까지 포함시킵니다. 지구법학은 이를 넘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근거로 삼아, 무생물에게까지 권리를 확장합니다. 이처럼 세 학자는 모두 인간 외 주체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차원에서 묶일 수 있습니다. 즉, “권리 주체의 범위 확장”이라는 동일한 차원이라는 점을 첫독해에서 관계를 파악하되, 세부 차이는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후, 제시된 컬리년의 경우, 1문단에서 언급된 관계인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구체화됩니다. 다양한 창조물들의 생존과 안녕을 인간이 부여하는 것이 아닌 지구 행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1문단에서 언급된 지구권의 정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이제부터 지구권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일상이 아니라, 추후 재독해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첫독해 과정에서 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1문단과 2문단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며, 그 정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추리논증적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예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3문단]

[차원의 구획] 이러한 권리 개념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법의 근거로 채택한 ①사례도 없진 않다. 전문에서부터 ‘우리가 그 일부이자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어머니 지구’와의 조화를 언급한 에콰도르 헌법이 그 예이다. 헌법에 환경권을 명시한 국가들 대부분이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인류의 지속가능성만 환경을 보전·관리할 목적이라 본 데 반해, / 에콰도르는 ‘생명의 순환과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권리’와 ‘자연이 스스로를 원상회복할 권리’를 헌법에 규정한다. 또한, 누구든 청원권을 행사하여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볼리비아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에서 자연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생태계가 본성 그대로 유지·회복하는 과정을 도울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전체로서의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 대신 특정 생태계나 종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을 택한다. ‘내가 강이고 강이 나다.’라는 마오리족의 믿음을 존중하여 황거누이강을 법적 인격체로 규정하고, 그 권리는 법이 정한 후견인의 강 이름으로 강을 대리하여 집행할 것을 명시한 <테 아와 투푸아법>이 그 예이다. 흐르던 물길이 가로막힌 강이나 서식지를 침범당한 새의 권리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려는 환경운동의 기획을 넘어 구체적인 법리 구성 단계에서도 다루어지게 되었다.

세 번째 문단에 들어서면서 논의의 차원이 분명히 구획됩니다. 1·2문단이 ‘비인간 존재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이었다면, 3문단은 이 권리 개념이 실제 제도 속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다루는 쟁점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별도로 출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재독해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결국 위치를 기억한다는 각인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후, 권리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이미 인정된 권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제시된 국가 사례들은 모두 자연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다는 공통 상위 차원의 전제가 존재하나, 구체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에콰도르 헌법	볼리비아 법	뉴질랜드의 법
어머니 지구' 전체를 권리 주체로 설정하며, 생명의 순환·진화 과정을 유지·재생을 존중받을 권리 자연의 자기 회복권을 명문화함	자연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할 뿐 아니라, 국민의 의무까지 규정 권리와 의무가 맞물리는 이중 구조를 형성	'전체 자연'이 아닌 특정 생태계 단위(황거누이 강)에 법적 인격을 부여 후견인 제도를 통해 권리를 대리·집행하게 하는 대리형·표적화 모델을 제시

각기 다른 구체화 방식은 재독해의 대상입니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즉 각 사례의 구체적인 법적 장치나 표현들은 분량이 많고 정보량도 적지 않기 때문에 모두 기억하려 해서는 안 되며, 재독해의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강의 법인격, 청원권, 후견인 제도 같은 세부 요소들은 단편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운 정보이므로, 정답 선지와와의 직접 대응이 필요할 때 재독해를 전제로 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단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된 핵심 구조는 첫독해에서 반드시 인식되어야 합니다. 즉, 이 제시문에 나열된 국가들 모두가 자연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이 글의 핵심 논지 흐름을 구성하는 기억 가능한 핵심 관계였습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문항은 차원의 구획과 변수를 의도적으로 뒤섞어 놓은 전형적인 오답생성방식이 쓰였습니다. 출제자가 사용하는 방식들을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선지들이 왜 틀렸는가를 학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정답 선지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 ④ 지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지리적 영역을 점한다는 사실에서 권리 주체성을 도출한다.

정답 선지인 4번은 '지구권'에 대해 정의를 알고 있다고 넘기지 말고, 의식적으로 재독해하러 돌아가야 한다는 행동 원칙 자체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일상적 표현이라고 하여 가볍게 넘기지 않고, 반드시 확인해보는 태도가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고, 정답의 명확한 근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문단]

[차원의 구획] 비인간 존재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그간 다양한 논의

가 진행되어 왔다. 가령 레건은 살아있음을 넘어 스스로가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는 상대적으로 더 월등한 존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거로써 동물의 권리를 옹호한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선을 가지며 그 고유한 가치의 잠재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테일러는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까지를 권리의 주체로 이해한다. 더 나아가 지구법학은 우주의 질서 안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그것이 권리를 가진다는 규범적 결론을 끌어낸다. [하위 차원의 설정] 이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실체를 갖거나(or)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점하는 존재자인 무생물의 권리도 인정된다. 지구법학의 지향을 ‘야생의 법’이라 표현한 컬리넨은 다양한 창조물들의 생존과 안녕은 인간이 아니라(not A) 지구 행성으로부터 (but B)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며 권리 주체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인류는 그간 법에서 억눌려 왔던 감성과 감각을 되살려 지구공동체의 춤에 참여하고, 그 박자에 스스로 몸짓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권은 ① 존재할 권리, / ② 서식지에 관한 권리, / ③ 지구공동체가 부단히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권리 등으로 / 구체화된다. 강은 강의 권리를, 새는 새의 권리를,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가지며, 각 권리의 존재 양태는 저마다 다르다.

일상어를 간과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 그 정의를 정확히 확인하였다면 지구권의 두 번째 정의에 명확히 대응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정답은 4번인 것이 명확했습니다.

사실상 “눈 땀니, 안 땀니” 수준의 문제였으며, 형식적으로 지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은 지구법학의 차원에 해당하고, 지리적 영역을 점유한다는 사실로부터 권리 주체성을 도출하는 관점은 제2문단의 논의를 그대로 활용하라는 선지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학습 차원에서 나머지 선지들의 오답생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① 인간중심적 법규범은 / 자연의 권리 근거를 ‘존재함’ 자체에서 구한다.

1번 선지는 The LEET BIBLE에서 누차 강조드렸던, 한 번이라도 본 단어들로 전혀 다른 관계를 구성한 전형적인 차원의 mismatch 문제였습니다. 해당 주장은 어디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나요? 자연의 권리에 대한 근거를 존재함 자체에서 구하는 논의는 인간중심적 법규범의 차원과는 절대로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당 진술이 세부적으로 어느 학자의 주장이었는지를 따져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상위

차원에서 '~인간중심적 법규범 차원'에서의 논의였습니다. 따라서 1번은 시험장에서 즉시 오답임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형식적 선지의 대표적 유형이었습니다.

② 지구법학은 모든 개체의 권리가 동일한 존재 양태를 가진다고 이해한다.

2번 선지 역시 'A의 B' 형식을 활용한 전형적인 오답 생성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선지에 제시된 "동일하다"는 관계는 도대체 어떤 논의에서 설정된 관계였나요? 이는 지문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즉 권리 인정 여부에 관하여 설정된 평면적 변수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권리의 인정 범위를 논하는 차원에서 등장한 관계였을 뿐, 권리의 존재 양태, 곧 권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구조화되는지에 관한 논의와는 전혀 무관하였습니다.

물론 2문단 말미에서는 권리의 존재 양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반복되어 온 오답 생성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출제자가 설정한 함정의 층위를 곧바로 구분해 낼 수 있었을 것이며, 해당 선지를 다시 한 번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③ 보전주의적 관점에는 / 법적 권리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 있다.

3번 선지 역시 차원의 구획을 의도한 형식적 선지의 전형이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기억이 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보전주의적 관점은 어느 차원에 해당하는 개념이었나요? 인간 중심적 법규범의 하위 차원에 해당하며, 따라서 절대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나 권리 주체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3번 선지 역시 한 번이라도 봤던 관계로 못 봤던 관계를 구성한 전형적인 차원의 mismatch가 이루어진 선지였습니다. 단순한 이항관계가 활용되는 제시문일수록 이처럼 차원의 불일치를 이용한 선지가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⑤ 컬리넌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감응 능력을 중시하는 기존 법학을 지구법학과 조율하려고 했다.

5번 선지는 다른 선지에 비해 시험장에서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가 요구하는 형식적 사고의 핵심은 결국 차원의 구획이었습니다.

이 선지는 "감응 능력을 중시한다"는 진술을 매개로, 기존 법학과 지구법학을 하나의 공통 상위